

악취제거제로 유명한 탄 ‘뉴트로’ 슬러지 문제도 해결

제품 ‘액비탱크’에 넣으면 잘 분해되고 가격도 저렴

악취 제거제로 유명한 ‘뉴트로’ 제품이 골칫거리인 액비저장조나 슬러리 피트의 슬러지 문제를 오래전부터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액비탱크에 넣으면 발효 과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슬러지를 잘 분해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농립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액비저장조 개보수비용 지원시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를 의무화 하면서 우린네이처의 ‘뉴트로’ 주문이 증가세에 있다. 농축산부가 올해부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 지원 내용에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비용을 포함해 지원한다.

‘뉴트로’ 사용법을 살펴보면 액비저장조 50톤당 뉴트로 1박스(원반)를 넣는다. 현재 뉴트로 1박스에 7만 7000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면 아무리 오래된 슬러지라도 묽은 간장 같이 풀어진다. 대개는 3~4개월 이내에 바닥을 볼 수 있으며, 200톤 액비저장조에 쌓인 슬러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만원도 안 든다.

우린네이처 관계자는 “뉴트로를 사용하면 슬러지 제거를 위해 액비를 모두 빼내고 말린 뒤 삽 등으로 퍼내는 작업이 필요 없어 가스과 악취 등으로 인한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소재 한 한돈농장(상시사육 2000두)은 빠른 악취저감이 필요할 때는 뉴트로 분말을, 지속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뉴트로 원반을 사용한다. 2세 한돈인인 이 농장 대표는 “농장의 기본적인 악취 문제와 슬러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트로 사용 후 오래된 슬러지가 풀어지면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북 정읍시 산외면 소재 B농장(상시사육 4200두)은 무항생제로 돼지를 사육 중이다. 이 농장 농장장은 “뉴트로 사용 후 악취 저감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슬러지 분해 효과도 아주 좋다”고 말했다.

또 “고액분리 시 찌꺼기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며 “현재 미생물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제의 10분의 1 비용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경제적인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충북에서 13년을 사용한 액비저장조에 뉴트로를 넣고 45일 후에 액비를 살포했는데, 액비에서 악취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슬러지까지 완전히 제거되어 자연스럽게 저장조 바닥 청소를 한 사례도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 2015년에 한돈농장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저감제 유효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린네이처의 ‘뉴트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뉴트로는 빠른 악취 제거뿐만 아니라 슬러지 분해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정희 기자